확장하려 하지 말고 발굴하라

(여호수아 17:1~18)

14.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시므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15.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16.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벧 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르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 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17.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확장하려 하지 말고 발굴하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확장하려 하지 말고 발굴하라'
부산 남구의 문현동이 최근에 당국으로부터 모 회사에 발굴 허가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발굴해야 하는 장소에 거대한 옹벽이 세워져있거나 이미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발굴에 많은 문제가 있고 극심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 뻔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현동 지역은 예전부터 발굴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1988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발사를 했던 박 모씨가 이 동네에 와서 발굴을 하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중단하면서 시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발굴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문현동 지하에 일본군이 수백 톤의 금괴를 묻어두었다는 소문이 계속 돌았기 때문인데, 지난 수십 년간 이 지역에서 보물을 찾으려 하는 뜨내기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에 근거해서 모 회사에 또 금괴 발굴을 위한 허가를 해주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불을 보듯 한 상황이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발굴'은 땅 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는 유적이나 지하자원이나 보물이나 심지어 유해를 겉으로

드러나 보이도록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은 뛰어난 것들을 찾아 밝혀내는 것도 발굴이고, 영화감독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유능한 신인을 발굴하고 인재를 발굴하기도 하는데 다 발굴입니다. 결국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드러나도록 끄집어내는 것이 발굴임을 상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발굴의 경우에는 대체로 오랫동안 땅 속에 묻혀있던 것을 발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캐나다의 한 다이아몬드 개발업체가 남아프리카의 케로우 광산에서 무려 1,11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다이아몬드 발굴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원석이라고 합니다. 1905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3,106캐럿짜리 원석이 발견된 것에 이어서, 110년 만에 최고로 크고 좋은 품질의 원석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땅 속에 얼마나 묻혀있었을까요? 유구한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경주 서봉총에서 일제 강점기였던 1926년에 금관이 발견되었습니다. 신라시대부터 1500년 동안을 묻혀 있다가 발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묻혀있었던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보물들이 묻혀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지으시려는 생각 속에, 이미 나의 존재도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을 허락하신 것처럼, 타락 이후의 우리에게도 타락의 영향력을 극복하고 다시금 복지를 허락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이 생각은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장구한 세월 동안을 땅 속에 묻혀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시36:7~8절을 보면 보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라고 주의 인자하심(주의 은총)을 보배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은총은 막연한 것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삶을 사는 나와 연관되어지는 관계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총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것은 ‘주의 은총을 발굴해 낸다.’는 것인데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며 살게 되고 주의 집의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139:15절에서는 ‘발굴해야 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이 마치 땅의 깊은 데서 기이하게 지음받은 것 같다고 합니다. 이어서 17~18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라고 나를 지으실 때에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모든 생각이 모래처럼 많으신데 그것들

이 다 보배롭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선민은 뭘 하면서 살게 되는가 하면, 이 땅에서 보이는 영역에서 동서남북으로 전후좌우로 내 영역을 일구어 나가면서 확장시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도 중국과 우리나라가 바다의 영토를 다루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두고서 신경전을 벌이며 논의에 들어간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 활동의 거의 전부는 이웃나라의 확장을 어떻게 막아 내느냐와 효과적으로 우리의 영역을 확장해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확장은 반드시 이렇게 이웃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고 이웃과의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발굴은 이웃이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세상눈에 보이지 않는 내 발밑에 있는 것을 캐내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경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보배로 묻혀있는 상태를 발굴해 낼 때의 내 기쁨은 무한대입니다. 선의의 경쟁조차도 선민에게는 악이고 불신앙이 되는데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선민에게는 경쟁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 기쁨과 내 감사와 내 행복은 발굴로부터 무한대로 주어지는 것이지 확장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자손이 땅 분배 과정에서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레위 지파가 빠졌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삼촌의 항렬에 끼어서 독립된 지파로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땅을 분배할 때에는 이들에게 각각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요셉 자손으로 두 지파를 묶어서 땅을 분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여호수아에게 와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당연한 요구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2지파 중에서 공식적으로 독립된 두 지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할당 된 땅을 제비 뽑아야 하는데, 둘을 묶어서 땅을 분배하니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새로운 몫을 더해주는 대신에 이미 분배받은 영역 내에서 미개척지인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을 개척해서 기업을 삼을 것을 권고합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권고에 대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그 땅은 철 병거를 소유한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개척하기 어렵다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다시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18절에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라고 기존의 해법을 반복하면서 논의를 끝냅니다. 도대체 이 에피소드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확장하려고 하지 말고 발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철 병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포기해버리는데,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는 이미 철 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이 사는 삼림지대까지도 이들의 영역으로 허락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발굴해내면 되는 것인데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넓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땅을 더 넓게 달라'는 이 상황은 다른 형제 지파의 땅을 파고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분배된 유다 지파의 땅을 되돌려 받든지, 앞으로 분배 될 형제 지파들의 땅을 미리 잠식하든지 둘 중의 하나인 것이지요.
이들이 이러한 요구가 부당한 이유는 사람이 많음을 이유로 더 많은 땅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지로는 에브라임 지파는 당시에 32,500명밖에 안 되었고, 므낫세 지파는 52,700명이지만 그 절반이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었기 때문에 26,350명 둘을 더해봐야 60,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대 지파는 76,500명이었습니다. 이미 요셉지파로 하나로 묶어서 할당되어진 이들이 받을 땅의 크기는 앞으로 64,300명의 잇사갈 지파가 받게 될 땅보다도 넓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단 지파는 64,400명이었고 스불론도 60,500명이었는데 이들의 땅보다도 이미 훨씬 더 넓고 좋은 땅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피해의식을 갖게 된 이유는 두 지파를 묶었기 때문이고, 한 지파 단위로 분배되어지는 분배의 원칙에 마음이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정한 분배의 원칙이나 사회적 통념에 속아서 나를 확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더 이상 세상에서 가질 필요가 없고, 이웃의 것을 침범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복지로 결정되어서 준비되었는데, 단지 이 보배로운 주의 생각을 발굴해 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점은 앞에서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슬로브핫의 딸들 이야기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핫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고 딸만 다섯입니다. 이 다섯 딸들이 모세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다고 해서 땅을 전혀 분배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어서 딸들에게 슬로브핫의 이름으로 땅을 할당해주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남자 중심의 상속법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남편과 아버지의 재산처럼 취급을 받던 상황에서 슬로브핫의 딸들이 '자신들의 땅을 찾게 해 달라'고 한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데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선민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 안에서 예비 된 복지가 있는데, 이 복지가 사회 통념의 땅에 묻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딸들은 땅을 분배 받을 수 없다'는 사회적 통념, 사회적 가치관, 사회적 관습, 사회적 신념체계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그 가치관에 의해서 외모가 출중하고 명품 백을 가지고 명품 옷을 걸치고 다니는 자들을 부러워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통념과 가치관 때문에 우리의 복지가 묻혀있습니다. '여자는 땅을 할당 받을 수 없다'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주어지려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계획되었던 땅들이 묻혀 있었는데 그 사회적 통념의 땅을 파서 하나님의 뜻을 발굴해 내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장하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주어지는 은총의 복지는 충분합니다. 문제는 개척을 해야 하는데 발굴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 속에서는 가나안 족속이 철 병거를 갖고 있었어도 이미 요셉 지파에게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던 것이고, 제비를 뽑아서 삼림지역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발굴해 내면 되는데 철 병거라는 사회적 통념과 이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삼림지역이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지가 땅에 묻혀버립니다.

내가 건강이 안 좋더라도 주님의 생각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 멈추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은 시편 139편의 노래처럼 다 보배입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 건강이 전부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인해 주의 은총적 보배가 묻혀버리고 맙니다.
주님께서 눅12:4~5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보배로 쥐고 있는 자들은 건강을 잃어도 아무것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하면 다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보배로운 생각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빨리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통념은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이 통념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보배로운 생각들이 묻히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통념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계획하신 복지가 묻혀버리고 마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뭡니까? 그 당시의 가장 첨단의 무기였던 철 병거가 지금의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의 복지를 철저하게 막아버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영역에 뛰어들어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향해 갖고 계신 주의 생각의 경계 안에는 내가 넘치도록 받을 복과 내가 누릴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수평면 상에서 동서남북 전후좌우로 내 영역을 넓혀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발굴해 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굴해 내야 할까요? 이 세상의 통념은 이미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현재 상황을 보며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기뻐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기쁨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들어와 있고 사회의 통념이 지배하는 상태에서 돈 벌었다고 좋아한다면 죄입니다. 이런 '철 병거'와 '딸은 기업을 분배 받을 수 없다'는 사회 통념이 제거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통념과 가치관에 지배당하며 돈이나 건강이나 자식들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이렇게 괴로운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죽을 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길을 따라 우리 마음이 하늘로 가게

되는데 이것을 생각으로라도 믿어야 합니다. 하늘의 좋음과 하나님의 좋으심이 마음으로 체감이 되지 않아도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생각으로라도 믿고 나를 세뇌시켜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고 승천하신 것도 사실이고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아버지와 함께 계시며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도 사실이며 나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늘의 좋음을 체감하지 못한다면 나를 세뇌시켜도 좋습니다.
변화 산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다고 했던 것같이 체감되지 않을지라도, 돈이 없어서 괴롭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고, 하늘의 하나님을 기업으로 가진 자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으로라도 세뇌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대해서 확장하려는 의지를 십자가에서 다 죽이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오직 나를 향하신 주의 보배로운 생각이 나타날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발굴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 통념이 주의 생각을 묻어버리고 있는데 사회 통념에 지배된 나의 상태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서 묻혀있던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고 발굴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 생각에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와 결혼을 한다면 이 아내가 곧 밉상이 되고 부부싸움이 잦게 됩니다. 그렇게 내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말고 먼저 '결혼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결혼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충분히 갖는 것입니다. '결혼 못하고 죽어도 내가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나를 세뇌시킵니다. 마음에 체감이 안 되더라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세뇌시킵니다. 그럴 때에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이 발굴되면서 결혼이 이루어지면 내 아내와 남편이 보배가 됩니다. 내 생각대로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저 나의 귀한 자식이겠지만,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결혼하여 낳은 자식이라면 그 자식이 보배가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한 사업이면 망하지 않고 돈 많이 벌고 싶은 사업일 뿐인데,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발굴 된 사업이면 그것이 보배인데 완전히 다른 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사회적 통념에 묻혀있는 주님의 보배로운 생각을 발굴해내는 십자가 생활화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의 은혜가 보배이고 주의 생각이 보배임을 알고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확장하려는 열망을 죽이고 주의 보배로운 생각을 통념에 묻힌 상태로부터 발굴해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